

지 상 증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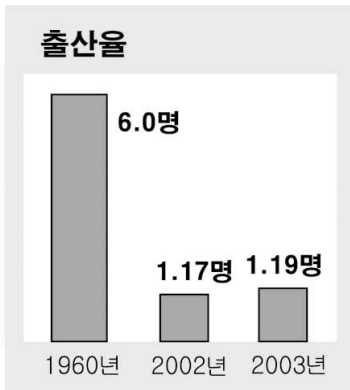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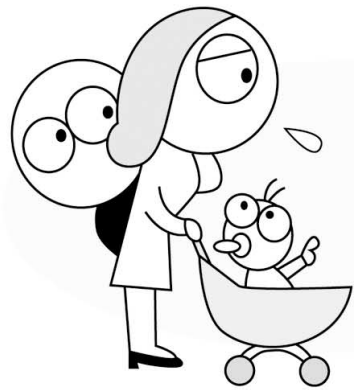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4>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 일시 : 불기 2549년 5월22일
- 강사 : 조희금 교수(대구대학교 · 가정학)
- 주제 : 오늘날 한국 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
-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출산율 세계 최저, 이혼·고령화 속도는 최고

오늘날 한국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효'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농촌총각은 신봉감을 구하기 위해 동남아로 원정가지만 이혼율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는 이제 국가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본사가 공동주최하는 구국구세대법회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의 네 번째 강사로 나선 조희금 교수(대구대학교 · 가정학,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장)가 한국 가정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를 내다봤다.



모와 자녀에서 부모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 문제는 사회나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자녀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가가 가정과 사회, 국가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불교적 가치는 가정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물과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연기적 가치가 가정과 연결되면 우리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불교가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가정의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 응답

가족계획과 출산장려정책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970년대 정부에서는 출산 억제 정책을 썼다. 현재 그 목표가 대부분 달성됐다.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것 아닌가. <김경희(남·56)>

▲정부에서 1962년부터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40년 만에 이를 폐기하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한다. 적정인구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다. 자연이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경제 규모와 고령화를 감안할 때 경제활동인구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국가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조희금 교수는

1978년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뒤, 82년 가정학 석사(서울대), 96년 가정학 박사(경희대) 학위를 취득했다. 농림부 농촌여성정책 자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험특위 정책개발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21세기 여성포럼 운영위원,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여성복지 전문위원, 한국가정관리학회·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한국가정과학회 상임이사, 저서 <가정생활복지론>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이혼율 증가

조 교수는 오늘날 한국 가정의 특징으로 '저출산'을 꼽았다. "1960년에는 여성 한명이 평균 6.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는 1.17명을 낳았습니다. 2003년에 들어서야 다소 회복 기미를 보여 1.19명이었습니다."

조 교수에 따르면 2명의 성인이 만나 한 가정을 꾸리면 평균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의 현상유지가 된다. 그러나 스님을 비롯해 특수신분도 있고 독신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 한명이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 한명 당 1.19명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보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명 정도 되고, 국가 존립 자체가 문제됩니다."

조 교수는 한국가정의 두 번째 특징으로 '고령화'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격한 진행에 있다. 장수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100년, 14%에서 20%로 증가하는데 40년 걸렸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도 14%에서 20% 증가하는데 12년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년 만에 14%에서 20%로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노인들을 누가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했지만 요즘은 이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고령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 교수는 마지막 특징으로 '이혼율 증가'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이혼율 증가 속도는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30만 쌍 정도 결혼했지만 이혼도 16만 쌍 가량 했습니다. 이혼통계 수치에는 기존 부부들의 이혼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 해에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30년 전에는 인구 천 명당 0.5건의 이혼율을 보였지만 이제는 3.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30만 건 중 24%가 재혼이다.

"이처럼 한국가정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가정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옛날 할마니나 어머니들은 우물거나 팔레터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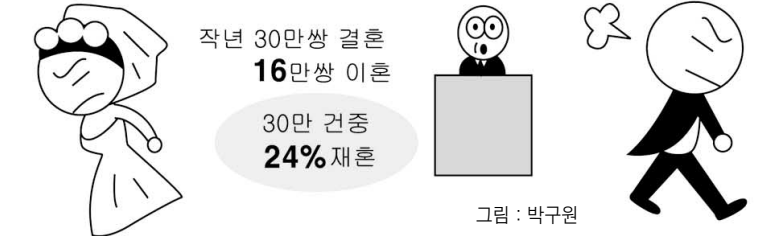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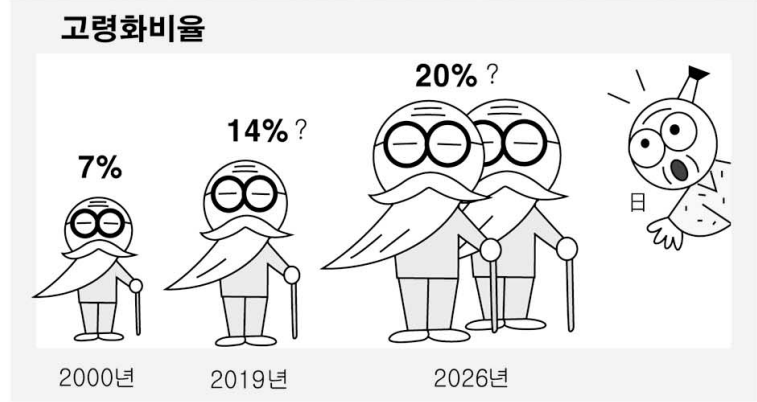


그림 : 박규원

부모·자녀 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변화... 가정교육·각종 제도 조화이뤄야

나눌 수 있었다. 자식 문제나 남편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이를 털어놓으면 경험 많은 친지 또는 어른이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풍한쪽도 나눠먹는 미덕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옛날 시골에서 자녀가 싸움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당시의 자녀를 꾸짖었다. 그러나 요즘은 싸움의 대상이었던 다른 집 자녀를 꾸짖는다. 가족 중심적이자 자녀중심적인 이기적

인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같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녀 한두 명을 낳아 기르다 보니 생겨난 군산들이다. "서로 나누고 배려했던 전통적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연기적인 가르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연기적 가치' 상생의 기본 단위

"이런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부부중심으로 나아

갈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왜 결혼했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하는 것' 또는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한 점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답한다. 가정 중심이 부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우리사회가 가정친화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만들어 가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국가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다음 주제: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강사 정현숙 · 6월 5일)

제17기 전생·빙의/영치유법 특강강좌!

전생(前世),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빙의/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일 제공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명확인 → 영가의 대화 → 영가친도 → 친도확인 → 재결심 방지 영치유법 ○ 약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제압 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룡보다 길진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사주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약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경계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화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낫게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6월 16일(매주 목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 ▶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 ▶ 교육비 : 200만원
- ▶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 통신교육 방식**
- ▶ 전생·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일을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7회과정 비디오 테일 총 20개)
- ▶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본원에 출석수업
- ▶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 ▶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재형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무료공개강좌

6월 13일
오후1시-3시까지

한국생활철학면학학회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학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i세상 속으로, KBS, iTV, CMB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